

전주시민축구단 홈에서 2연승 도전

16일 K4리그 7라운드 부산아이파크 퓨처스와 '격돌'

공격에 김도형·김태형, 중원에 양태렬 등 투입 예상

"막강화력으로 팬들께 재미·즐거움 함께 선사할 것"

전주시민축구단(감독 양영철)이 홈에서 2연승에 도전한다.

이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7라운드 부산아이파크 퓨처스와 홈경기를 갖는다.

전주는 6라운드 현재 경기당 2골을 기록하며, 회끈한 공격축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김도형과 안태열이 각각 4골과 4도움으로 득점과 도움에서 4위와 1위에 랭크돼 있다.

전주는 승점 5점(1승 2무 3패)으로 15위를 달리고 있다. 이에 이날 부산B팀을 상대로 홈에서 반드시 승리해 리그 2연승과 함께 선두권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공격에선 김도형과 김태영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중원에서는 양태열과 이영찬·신운호·최강희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에 활력을 넣을 전망이다.

수비에서는 심원성과 김창수·장경호·박광윤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골문은 지난 경기에서 클린 시트를 선보인 김선국이 또다시 무실점에 도전한다.

양영철 감독은 "시즌 초반에는 조직력에서 문제를 보여 승리보다 패가 많았지만 선수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는 흥경기인 만큼 막강화력으로 팬들께 재미와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민축구단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종합운동장에서 K4리그 7라운드 부산아이파크 퓨처스와 홈경기를 통해 리그 2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드리블을 하고 있는 양태열 선수의 모습이다.

승마시즌 '본격'

장수국제승마장서 20일까지

'2023 춘계 전국승마대회'

14경기에 선수 200여명 출전



장수군은 대한승마협회(회장 박서영) 주최로 14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5일간에 걸쳐 2023 춘계 전국승마대회가 장수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마마슬, 장애물 등 2개 종목 14경기야 일련인 유소년 등 약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자웅을 겨루는 전국대회로 어느 때보다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대회는 6월에 개최되는 제4회 아시아주니챔피언십 선발전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승마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수=고판호 기자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제13회 전국 청소년 마술경연대회

2023년 4월 22일 오후 1시~3시

전주 중부 비전센터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후원: 전주매일신문사, 전주시

**본 행사는 전주시 보조금으로
진행됩니다.

태권도진흥재단, '올 태권도 희망나눔교실' 추진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1634명 동참… 올해는 24일까지 참여단체 접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은환, 이하 재단)은 아동과 노인,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태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도 태권도 희망나눔 교실(이하 태권도 교실)' 사업을 추진한다.

태권도 교실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작년까지 1만1,634명이 동참하는 등 참여자들의 건강증진과 태권도 보급 등의 성과를 보이며 참여인원과 사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태권도 교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족도 조사에서 "나이가 들고나니 외부 활동도 어렵고 육체적인 운동을 하기 부담되는데 태권도를 통해 스트레칭과 균형운동, 성취감 등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태권도장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태권도를 하고 싶었는데, 도복 입은 내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라는 의견 등 긍정적 평가 속에 5점 만점 중 4.52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기도 했다.

참여 단체 접수는 24일 오후 1시까지로 전국 복지시설과 특수·취약 계층 관련 시설 등이 대상으로 계량·비계량 심사를 거쳐 전국 12개 소를 선정, 태권도 수업을 진행한다. 태권도 교실에서는 인사 예절과 기본자세 등의 이론과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며 특히, 재단은 지도서법을 비롯해 태권도 교실 운영에 필요한 도복과 띠 등 기자재를 지원한다. 총 20회의 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활한 수련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설과 단체에 태권도 교육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은환 이사장은 "우리 재단은 국기 태권도 보급과 활성화 등을 위해 태권도를 쉽게 접하기 힘든 대상을 찾아가 수련과 운동을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여자들

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위해 우리 재단이 최선을 다해 도울 테니 참여를 희망하는 많은 단체에서 지원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시설 및 단체는 태권도진흥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피겨 이해인, 팀 트로피 쇼트 1위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 이해인(18·세화여고)이 국가대항전인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팀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개인 최고 점수를 써내며 1위에 올랐다.

이해인은 13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1.00점, 예술점수(PCS) 35.90점으로 합계 76.90점을 받았다.

6개국에서 2명씩 총 12명이 출전한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이해인은 1위를 차지했다.

이해인은 이날 받은 점수는 지난달 2023 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성한 총점 ISU 개인 쇼트프로그램 최고점(73.62점)을 3.28 점 끌어올린 것이다. /뉴스스